



세계에스페란토 협회 (UEA)

제 10 차 소수자 인권 포럼 연설

2017/11/30 – 12/1, 제네바, 유엔, 팔레 데 나씨옹

공적 생활 있어서 소수자 청년의 포괄적인 교육과 참여

의장님, 기자님, 여러 민족·종족·종교·언어의 소수자 대표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aluton!*

저는 **스테판 켈러** (Stefano Keller) 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제 동료들과 저는, 국제 언어인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의 조직,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UEA)** 를 대표합니다. 다른 여타의 언어들과는 달리, 에스페란토는 제왕적 경향을 지닐 수 없고,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과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에스페란토는 에스페란토를 선택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각 국민들 간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언어 평등을 창출합니다.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가 소수 민족과 선주민들의 언어권을 옹호한 지 벌써 백 년 이상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발언자들은 소수자 출신의 청년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로 세계를 알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모국어로 가장 잘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의 모국어로 하는 교육을 통해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에스페란토 학습이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초가 되어서 다른 국민의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친애하는 참석자 여러분, 소수자 구성원과 결정권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께 언어 소수자들의 언어 권리를 실현시킬 안내 도구를 공부하고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동시통역과 수화 통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ankon!

한국어 번역: 최은숙 / *CHOI Eun Suk*